

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Sandplay Therapy on the PTSD Symptoms and
Resilience of Street Children in Uganda**

장 미 경** 최 예 린*** 이 세 화**** 이 여 름**** 조 은 진****
Mikyung Jang Yelin Choi Sehwa Lee Yeoreum Lee Eunjin Cho

<Abstract>

Poverty has forced over a million children in Uganda to live on the streets. These children often come from families where they suffered violence and sexual abuse. Besides starvation and unhygienic conditions, street children face physical and sexual abuse. The perpetrators range from adults such as the police to other street children. For our study, we recruited sixteen former street children, eight boys and eight girls. They were living in a child welfare facility at the time of research. We used the mixed research method for our research design. For quantitative research, we used two measures: CRIES-13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13), CYRM-28 (Child & Youth Resilience Measure). We used a qualitative cas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themes in the sandplay process. The quantitative results indicated that the group sandplay therapy improved PTSD Symptoms and resilience. The qualitative results revealed several common themes such as garbage, salvation and big project.

Keywords : Uganda, street children, PTSD symptoms, resilience, group, sandplay therapy

* 본 논문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림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ISST) 제25회 학술대회 'Dreaming with the Hand'에서 연구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주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kidworld@daum.net)
**** 공동저자,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상담·심리치료 전공 박사과정

I. 서 론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의 52%는 15세 이하이다(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14). 아동 보호법에 따라 고아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당국에 알리는 법적 요구 사항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UNICEF, 2015)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죽음과 학대·방임 등의 가족체계 붕괴 혹은 빈곤 문제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 수 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그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된 곳이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길거리 아동들은 길거리 생활 이전부터 대다수가 학대를 경험했다(Bender, et al., 2015).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생활하고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으려 도망 다니다 사고를 당하기도하며 동료가 사고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아동들은 길거리 생활을 하는 동안 남녀 아동 모두 경찰, 성인 혹은 자신들끼리의 문제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남자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을, 여자 아동들은 정서적·성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Walakira, et al., 2014). 또한 길거리 아동들의 70%는 접착제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으며(Plummer, Kudrati & Yousif, 2007), 알코올에 노출되어있다. 유해물질 흡입 경험은 반사회적 행동, 학습능력 저하 등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Park, et al., 2003) PTSD와도 연관되어 있다(Pluck, et al., 2015). 이러한 아동의 외상 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도 증가된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영향, 비행, 중독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Nierop, et al., 2018; Franz, 2015; Lowell, Renk, & Adgate, 2014;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Roemer, et al., 2001).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 가족해체, 학대, 방임 등으로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여도 각 개인마다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능력은 다르며 이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외상경험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적·정서적 힘, 문화적 가치, 종교적 신념, 지지적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외상 겪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Hills, Meyer-Weitz, & Asante, 2016; Ungar,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동료들의 지지, 자기효율성, 기본적인 삶 유지에 대한 접근성, 지능, 문제해결 능력, 사회 문화적 자원 등과 관련이 있다(Theron & Malindi, 2010; Kombarakaran 2004; Cheunwattana & Meksawat 2002; D'Abreu, Mullis, & Cook, 1999; Donald & Swart-Kruger 1994). 즉 회복탄력성 수준은 PTSD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Reyes, et al.,

2019; 송용선, 2017).

놀이는 외상내용에 위협을 덜 느낀 채 비언어적인 감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Goodyear Brown, 2010). 특히 모래와 피겨 등을 이용한 모래놀이치료는 상징물을 통해 충격적인 경험을 표현하면서 외포된 경험 안의 내포된 경험을 병합하여 아이들의 내면세계를 재창조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기 내면의 공간을 모래놀이치료에 재탄생 시키고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는 외상경험이 있는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기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모래놀이치료로 진행하였으며 집단으로 구성될 경우, 내담자는 다른 집단원으로 부터 즉각적인 반응과 민감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학대나 실패 등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험 자체를 통해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다(Berg, Landreth, & Fall,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래놀이치료는 트라우마와 물질남용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효과적 이었으며(Freedle, Altschul, & Freedle, 2015), 네팔 지진 생존 부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황혜지, 2017) 네팔 지진 생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서 효과가 있었다(이세화, 2016).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길거리 생활을 경험한 아동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길거리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폭력, 약물사용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지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와 모래장면에 나타난 주제, 상징 들을 질적 분석하여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 들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간다 길거리 아동을 위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2세에서 16세 아동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를 밝힌 남아 8명과 여아 8명을 선정하였다. 아동들의 평균연령은 13.94세이며 시설 생활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었다. 또한 16명의 아동 모두 과거에 부모 및 친인척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절차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집단은 성별에 따라 4명씩 4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집단 구성은 혼성집단보다 동성집단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하지연·신성민, 2016; 조중현·김진숙, 2014; 조한익·권혜연, 2011; 유승은·박부진, 2010).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와 시설장 및 담당 교사에게 연구 목적 및 내용, 촬영 등을 포함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집단모래놀이치료 진행은 시설 내 연구진이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 모래놀이치료실을 만들었다. 현지 시설 사정상 대조군 집단 없이 실험집단 16명에게 3주 동안 사전/사후 검사회기를 제외한 3회기의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이루어졌다.

집단모래놀이치료는 두 명씩 팀이 되어 번갈아가며 개별모래상자를 만든 다음 각자의 모래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연구진은 프로그램에 동안 아동들에게 Dora Kalff가 언급했던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3. 연구도구

1) 아동용 사건충격척도 (The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 CRIES-13)

CRIES-13은 the Children and War Foundation이 PTSD 아동을 선별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영어버전으로 제공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 4점 Likert 척도로(0 = not at all; 1 = rarely; 3 = sometimes; and 5 = often) 3가지 하위요인인 침습, 회피, 과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65점으로 침습과 회피의 경우 20점 이상, 과각성의 경우 25점 이상, 총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PTSD로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8이다.

2)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 (The Child and Youth Resilience Measure-28; CYRM-28)

CYRM-28은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Ungar(2008)가 개발한 CYRM-28 영어 버전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개인의 자원인 본인, 관계, 커뮤니티와 문화를 측정할 수 있다. CYRM-28은 10-23세 아동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8-140점 범위에서 매우 낮은 탄력성, 낮은 탄력성, 보통, 높은 탄력성, 매우 높은 탄력성, 총 5가지 범위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4 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시설장의 동의 하에 사전·사후 설문지 검사 자료, 모래놀이치료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모래사진을 수집하였다. 또한 집단모래놀이치료 실시 전 연구참여자의 개별적 발달사 및 현 시설 정착과정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면담과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실시되는 동안 연구진 2명이 각각 진행자와 자료수집을 위한 보조진행자로 역할을 나누었고, 보조진행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모래장면에 대한 언급 등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코드화 하였으며 양적분석을 위해 SPSS 24.0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질적분석에서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을 현실적 맥락과 정황 속에서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여 사례에 대한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이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어떠한 주제와 표현을 나타내지를 알아보고자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Stake(1995)는 사례연구 유형으로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우간다 길거리 아동이라는 특정 상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위해 여러 사례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연구하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적용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집단모래놀이치료 과정의 촬영된 동영상을 전사하여 참여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풀어쓴 자료와 보조진행자의 관찰 기록지 그리고 개별모래상자 사진을 통해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공통적 주제 및 표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풀어쓴 자료와 관찰 기록지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서사 주제의 확산 또는 수렴 경향은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및 시각적 표현 방법을 통해 요약하였다(Johnson, 2004).

자료 분석방법은 범주 합산 또는 직접 해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개별적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의 경우는 어떤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를 모으는 Stake(1995)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사례에서 나타난 주제 또는 표현을 배열하고 특성을 범주화한 다음 연구진의 직관적인 합산으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예비 범주들로 분류하면서 그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시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공통적 주제 및 표현을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은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와 해석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화(triangulation)를 활용하였다. 삼각화란 질적연구의 타당화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다양한 방법, 연구자, 조사대상, 공간적·시간적 설정 혹은 다른 이론적 입장을 조합시키는 것이다(Flick, 2004). 그 중 자료의 삼각화란 다른 자료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과정의 전사록, 모래상자 사진, 보조진행자의 관찰 기록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료 검토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내러티브 연구, 참여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등 여러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의견공유와 점검,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윤리적 고려는 연구진이 연구 목적, 비밀보장 등 참여자 및 법적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된 서면의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고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파일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전 과정의 전사록 내용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연구대상자의 비밀 유지를 위해 철저히 보호하여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엄격하게 지켰다.

Ⅲ. 연구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사전·사후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전·사후 검사의 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침습($t=7.09, p<.001$), 회피($t=3.88, p<.001$), 과각성($t=4.24, p<.001$), 총점($t=10.48, p<.001$)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표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변화 검증 (N=16)

하위영역	점수 M(SD)		t
침습	사전	14.63(2.87)	7.09***
	사후	10.88(2.58)	
회피	사전	17.06(1.77)	3.88***
	사후	14.88(2.06)	
과각성	사전	15.50(4.23)	4.24***
	사후	12.13(4.06)	
CRIES-13 총점	사전	47.19(5.61)	10.48***
	사후	37.88(6.48)	

*** $p < .001$

2)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회복탄력성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사전·사후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간다 거리의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하위영역에서 개인적 능력, 또래 지지, 사회적 기술, 개인영역 총점과 양육자의 관계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양육자와 관계 총점과 맥락 하위영역에서 영적, 교육, 문화, 맥락영역 총

표 2. 회복탄력성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변화 검증 (N=16)

하위영역	점수 M(SD)		t	
개인	개인적 능력	사전	20.06(2.49)	-3.22**
		사후	22.31(2.24)	
	또래 지지	사전	7.69(1.78)	-1.34
		사후	8.50(1.27)	
	사회적 기술	사전	15.56(2.85)	-4.04***
		사후	18.06(1.39)	
총점	사전	43.31(4.88)	-4.66***	
	사후	48.88(3.24)		
양육자와 관계	신체적 돌봄	사전	6.19(1.83)	-3.23**
		사후	7.88(1.15)	
	정서적 돌봄	사전	20.31(2.52)	-.73
		사후	20.81(2.69)	
	총점	사전	26.50(4.09)	-2.16*
		사후	28.69(3.16)	

표 2. 회복탄력성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변화 검증 (N=16)(계속)

하위영역		점수 M(SD)		t
맥락	영적	사전	12.81(1.94)	-.47
		사후	13.00(1.97)	
	교육	사전	9.56(1.21)	-.76
		사후	9.75(.58)	
	문화	사전	18.25(2.59)	-2.27*
		사후	20.06(3.02)	
	총점	사전	40.63(4.16)	-2.49**
		사후	42.81(4.58)	
CYRM-28 총점		사전	110.44(8.12)	-6.09***
		사후	120.38(6.58)	

* $p < .05$, ** $p < .01$, *** $p < .001$

점 그리고 CYRM-28 총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t = -6.09, p < .001$).

2. 질적연구 결과

우간다 아동들의 모래놀이치료 장면을 질적 분석한 결과 쓰레기 *Garbage*, 구원, 빅 프로젝트 세 가지 주제로 표현되었다.

1) 쓰레기 *Garbage*

아동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갔다. 그들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의 죽음으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학대를 경험하였고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위해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로 나왔다고 이야기 하였다. 길거리에서 쓰레기장 *Garbage Center* 을 뒤져 생활하며 먹을 것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얻었다. 아동들은 길거리 생활이 자신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길거리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모래놀이 치료 장면에서 쓰레기장 *Garbage Center* 안에 탐스러운 것들을 담았고 그 앞에 아이, 늑대, 벌레,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을 표현하였다. 위험하고 쓰레기같은 생활은 아동의 삶 전반에 깔려있음에도 그들에게는 쓰레기 *Garbage* 만이 유일한 생존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그림 1. G, 1회기 모래장면

“나는 들개들과 벌레들 그리고 다른 애들과 경쟁하면서 먹을 것들을 찾고 다녔어요.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계속 누워있는 엄마도 돌봐야 되고 배고파서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다쳤던 적도 있어요.” - G (14세, 남, 1회기)



그림 2. H, 1회기 모래장면

“집에는 벌레들이 가득 차있고 때리는 삼촌들도 있어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배고프면 친구들이라 쓰레기센터를 가는데, 어떨 때는 그 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날은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 P (15세, 여, 1회기)

2) 구원 *Salvation*

아동들이 길거리에서 쫓기고 있을 때, 아동복지시설의 직원들이 찾아왔다. 아동들은 처음

그들을 의심하고 경계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아동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시설은 거리에 있던 아동들에게 새로운 집과 학교 등을 제공하였다. 아동들에게 이들은 구원자이다. 아동들은 그들을 공주, 왕비, 엘사 등의 피겨로 표현하며 고마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 왕비로 표현된 시설장과 직원들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기관에 있는 많은 인원수의 아동들에 비해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는 적었고 이러한 차이는 아동들 개개인에게 친밀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A, 2회기 모래장면

“나는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설장을 만났어요. 시설장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했고 먹을 것들을 줬어요. 날 구했어요.” - A (16세, 남, 2회기)



그림 4. J, 2회기 모래장면

“선생님이 나에게 학교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방학이라서 너무 심심한데 빨리 개학해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 J, (15세, 여, 2회기)

3) 빅 프로젝트 *Big Project*

아동들은 모래놀이치료 장면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과 학교경험으로 인해 생긴 자신들의 삶에 관한 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기자, 교사,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 했으며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모래장면에서 표현하였다. 미래에 아동들은 길거리 아동들을 위한 크고 농장과 차가 있는 집을 표현하였고 울타리와 가드로 그곳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빅 프로젝트 안에는 어른들과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헌신과 봉사 등 이타적인 삶은 있었지만 아동 자신을 위한 삶은 매우 일부분만 있었다. 과도한 이타적 삶에 대한 표현은 시설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이 어린아동들을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며 자신보다 타인을 돌보는 것에 사회화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 여기 친구들은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와 같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건데, 나는 집과 학교를 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도 함께 지낼 곳도 만들 거예요.” - C (16세, 남, 3회기)



그림 5. C, 3회기 모래장면

“거리 아이들을 데려와서 학교를 보내고 먹을 것들을 줄 거예요. 그 옆에는 닭이랑 소를 키우고 큰 집하고 차도 있어요. 나는 아픈 곳을 고쳐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 J (14세, 여, 3회기)



그림 6. J, 3회기 모래장면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간다 길거리 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장면을 질적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치료실과 모래상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치료사와 집단원과 함께 자신의 외상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심리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황혜지(2017), Jung (2010), 조정숙(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모래놀이치료가 우간다 길거리 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가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다는 이세화(2016), 유승은·박부진(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하위요인 중 개인 영역에서 또래지지, 양육자와의 관계영역에서 정서적 돌봄, 맥락 영역에서 영적, 교육요인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모래놀이치료가 또래 집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음에도 아동들이 시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받기 어려우며, 소수의 양육자인 교사와 다수인 아동들에게 깊은 정서적 돌봄을 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짧은 회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영역에서의 영적, 교육요인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그에 비해 맥락영역의 문화요인에서는 아동들이 놀이를 통한 접근 등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가 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우간다 아동들의 모래놀이치료 장면은 쓰레기Garbage, 구원, 빅 프로젝트 세 가지

주제로 표현되었다. 아동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안전하게 표현하고 상담사와 집단원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아동들은 과거, 현재, 미래 등 자신의 생활에서의 변화와 꿈 등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3회기로 진행되었고 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단원 각자의 자아발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과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16명이라는 소수로 한 기관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전체 우간다 길거리 아동들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현지 사정과 환경적인 제한으로 인해 진행된 3회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효과를 주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 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까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장기간 개입과 지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단일집단 사전-사후로 설계되었다.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처치 전후에 관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비교 대상이 없는 실험집단만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집단 모래놀이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었으며 보다 긴 회기의 심리치료가 개입된다면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해 길거리 생활경험이 있는 아동, 방임과 학대 등을 경험한 아동, 시설거주 아동들의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심리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송용선 (2017). 소방관의 회복탄력성과 PTSD 관계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1(3), 119-126.
- 유승은 & 박부진 (2010).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불안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4(1), 67-88.
- 이세화 (2016). 집단모래놀이치료가 네팔 지진 생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숙 (201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아를 위한 모래놀이 치료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31(4), 29-47.
- 조중현 & 김진숙 (2014). 중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5(6), 2291-2310.

- 조한익 & 권혜연 (2011).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18(7), 163-183.
- 하지연 & 신성만 (2016).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적용이론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91-216.
- 황혜지 (2017). The effect of parent group sandplay therapy on the Nepal earthquake survivors: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as well as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8(2).
- Bender, K., Brown, S. M., Thompson, S. J., Ferguson, K. M., & Langenderfer, L. (2015). Multiple victimizations before and after leaving home associated with PTSD,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among homeless youth. *Child maltreatment*, 20(2), 115-124.
- Berg, R. C., Landreth, G. L., & Fall, K. A. (2006). *Group counseling: Concepts procedures (3rd ed.)*. New York: Routledge/Taylor&Francis.
- Cheunwattana, A., & Meksawat, P. (2002). Small is beautiful: the library train for homeless children. *Library management*, 23(1/2), 88-92.
- D'Abreu, R. C., Mullis, A. K., & Cook, L. R. (1999). The resiliency of street children in Brazil. *Adolescence*, 34(136), 745-745.
- Donald, D., & Swart-Kruger, J. (1994). The South African street child: developmental implication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4(4), 169-174.
- Flick, U. (2004). Triangul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3, 178-183.
- Franz, A. O. (2015).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personality traits and adulthood relationship quality*. Western Carolina University.
- Freedle, L. R., Altschul, D. B., & Freedle, A. (2015). The role of sandplay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co-occurring substance use disorders and trauma. *Journal of Sandplay Therapy*, 24(2), 127-145.
- Hills, F., Meyer-Weitz, A., & Asante, K. O. (2016). The lived experiences of street children in Durban, South Africa: violence, substance use,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1(1), 30302.
- Jung, W. H. (2010).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in a College Student with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3), 55-69.
- Kombarakaran, F. A. (2004). Street children of Bombay: Their stresses and strategies of cop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9), 853-871.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 Lowell, A., Renk, K., & Adgate, A. H. (2014).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later emotion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38*(9), 1436-1449.
- Nierop, M., Lecei, A., Myin-Germeys, I., Collip, D., Viechtbauer, W., Jacobs, N., & van Winkel, R. (2018). Stress reactivity links childhood trauma exposure to an admixture of depressive, anxiety, and psychosis symptoms. *Psychiatry research, 260*, 451-457.
- Pearson, M., & Wilson, H. (2019). Sandplay Therapy: A Safe, Creative Space for Trauma Recovery. *Australian Counselling Research Journal, 13*(1), 20-24.
- Park, C. K., Kwon, K. T., Lee, D. S., Jo, C. M., Tak, W. Y., Kweon, Y. O., Kim, S. K., & Choi, Y. H. (2003). A Case of Toxic Hepatitis Induced by Habitual Glue Sniffing.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9*(4), 332-336.
- Pluck, G., Banda-Cruz, D. R., Andrade-Guimaraes, M. V., Ricaurte-Diaz, S., & Borja-Alvarez, T. (201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ntellectual function of socioeconomically deprived 'Street children' in Quito, Ecuador.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3*(2), 215-224.
- Plummer, M. L., Kudrati, M., & Yousif, N. D. E. H. (2007). Beginning street life: Factors contributing to children working and living on the streets of Khartoum, Suda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12), 1520-1536.
- Reyes, A. T., Constantino, R. E., Cross, C. L., Tan, R. A., Bombard, J. N., & Acupan, A. R. (2019).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trauma among Filipino American wo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 Roemer, L., Litz, B. T., Orsillo, S. M., & Wagner, A. W. (2001).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strategic withholding of emotions in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149-156.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Theron, L. C., & Malindi, M. J. (2010). Resilient street youth: A qualitative South African study.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717-736.
- 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14).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4. Uganda Bureau of Statistics.
- Ungar, M. (2008). Resilience across cultur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2), 218-235.
- UNICEF. (2015). Situation analysis of children in Uganda. 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and UNICEF Uganda.
- Walakira, E. J., Ddumba-Nyanzi, I., Lishan, S., & Baizerman, M. (2014). No place is safe: violence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Vol.10 No.2.

against and among children and youth in street situations in Uganda.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9(4), 332-340.

투고일 : 2019. 10. 30
수정일 : 2019. 12. 12
게재확정일 : 2019. 12. 23